

# 어한기 수산물 물가안정 대책 차질 없이 추진

- 송명달 해수부 차관, 태안 서부시장 정부 비축물량 방출 현장 점검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5월 22일(수) 14시 태안서부시장에서 어한기 수산물 물가안정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5월 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4월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3월보다 1.1% 감소하는 등 안정적인 상황이다. 다만, 5월은 수산물 생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어한기’로써, 해양수산부는 어한기 수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대중성 어종 6종의 정부 비축물량 약 5천톤을 6월까지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 < 어한기 정부방출 계획물량 >

구분	계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
계획물량	5,080톤	3,000톤	700톤	330톤	900톤	130톤	20톤

이번 정부 비축수산물은 전통시장과 마트 등 주요 소비처에 우선 공급되고, 일부 물량은 도매시장이나 수산물 가공업체(B2B 공개입찰) 등 다양한 유통경로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날 송명달 차관은 시장 내 수산물 판매 점포를 돌아보며 수산물 수급과 가격 동향을 살피고, 정부 비축수산물 권장가격 준수 여부와 ‘물가 안정용’ 표기 여부 등도 꼼꼼하게 점검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현장에서 “어한기 수산물 수급관리를 위해 지난달보다 정부 비축물량 공급량과 방출처를 대폭 확대했다.”라며, “정부 비축수산물은 시중 소비자가격 대비 30%가량 저렴하게 판매하도록 관리하고 있어 어한기 수산물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기원 (044-200-5440)
		담당자	서기관	정재훈 (044-200-5447)